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9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환우를 위한 기도

나의 생명되신 주(찬 380)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 사랑 얼마나

주께와 엮드려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0:17-32

날마다

“에베소에 바울이 남긴 바로 그것”

교회의 참된 터는(찬 60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0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 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천위원회**가 오늘(10/10) 예배 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4. **삼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5. 남후남 장로님의 손녀 **Hannah Shea**가 **두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 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101.5 / HD Radio FM 93.5-4 토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 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저는 세면대는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면서 물이 흘러가니 자연스럽게 씻기는 줄 알았습니다. 10여년 전 아내가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절로 물로 닦이는 줄 알고,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던 세면대는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진 세면대를 비누로 닦으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내가 세면대를 늘 청소하고 있었다고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가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아내가 식사 준비를 비롯한 가사 일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저렇게 하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해볼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 다.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해야하고, 식사 준비를 위한 장을 보고, 준비하고, 음식을 하고, 욕조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또 빨래도 해야하고...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조금 돕기는 했지만, 직접 해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직접 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예배와 성경공부 등 참석에만 의존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 참석마저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자신은 나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듣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고, 보기만 하는 실천없는 신앙인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연약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오면 견딜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채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